

---

# I

##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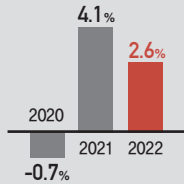
1. 실물경제	3
2. 금융·외환시장	14

# 2022 한국경제

## 성장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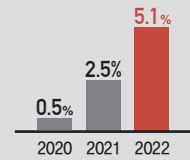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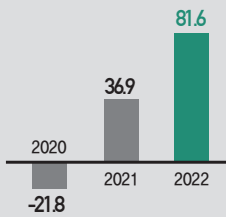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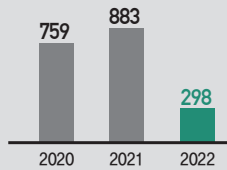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감

81.6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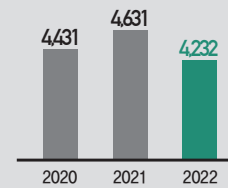
## 경상수지

298억 달러(흑자)



## 외환보유액 (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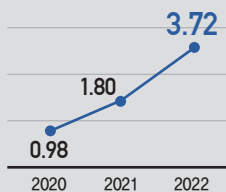
4,232억 달러



## 금리(연말 기준)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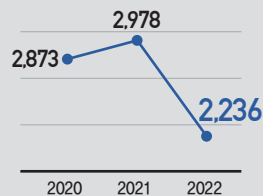
국고채(3년)



## 주가(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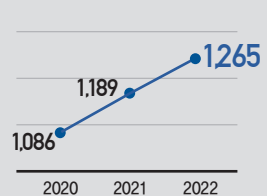
2,236

KOSPI



## 환율(연말 기준)

1,265 원/달러



## 1. 실물경제<sup>1)</sup>

### 가.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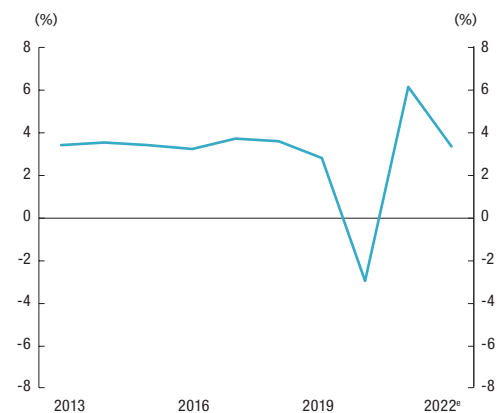
2022년 중 세계경제는 주요국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유로지역은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일본·중국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영향이 주된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세계교역도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OPEC+의 감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2022년 중 세계경제는 주요국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에너지 수급 차질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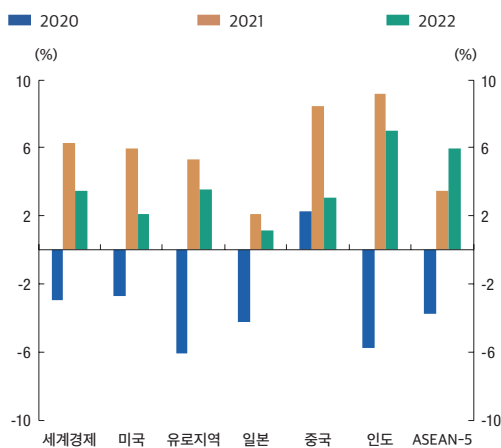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물가상승압력 확대와 이에 대응한 급속한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둔화기조가 지속되었다. 일본의 경우

그림 1 - 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IMF

그림 1 - 2.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자료: IMF, 각국 통계청

1) 2022년 중 경제 동향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12월호. 2023년 3월호.

2) 주요 국제기구의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추정 : IMF 3.4%, OECD·UN 3.2%, World Bank 3.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며 중국은 제로코비드 정책 지속 및 부동산시장 부진<sup>3)</sup>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인도는 3/4분기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이후에는 대내외여건 악화로 경기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ASEAN 5개국의 경우 수출 호조, 입국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나갔으나 4/4분기 들어 주요국 경기 둔화, IT경기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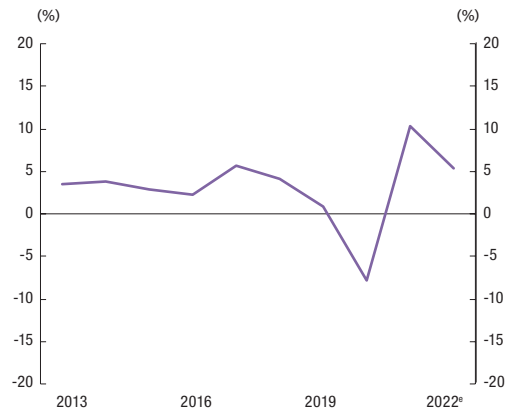
### 세계교역 부진

세계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다<sup>4)</sup>. 상품교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교역은 입국 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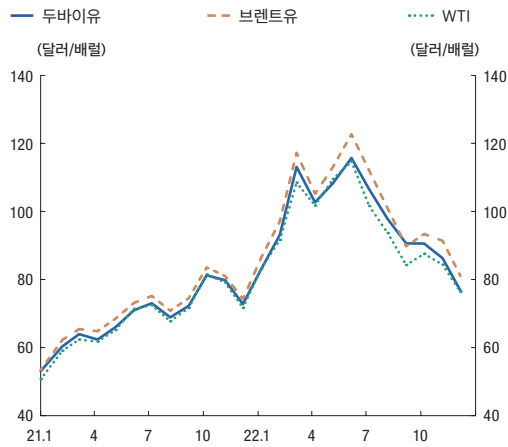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가운데,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였다<sup>5)</sup>. 상반기 중 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발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에 따라 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1 - 3. 세계교역 신장률<sup>1)</sup>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그림 1 - 4.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Bloomberg, Reuters

3) 중국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 둔화, 규제 강화, 소비자심리 악화 등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특히恒大 그룹 사태(2021년 9월) 이후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해외경제 포커스」(제2023-1호)의 「국제경제리뷰: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세계교역 신장률(IMF기준): 2020년 -7.8% → 2021년 10.4% → 2022년 5.4%\*

5) 국제유가(두바이유, 연평균, 배럴당 기준): 2020년 42.2달러 → 2021년 69.0달러 → 2022년 97.0달러

## 글로벌 인플레이션 큰 폭 확대

글로벌 물가는 2022년 중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오름폭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식량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22년 중반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상당폭 완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둔화 시점 및 속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이다.

## 나.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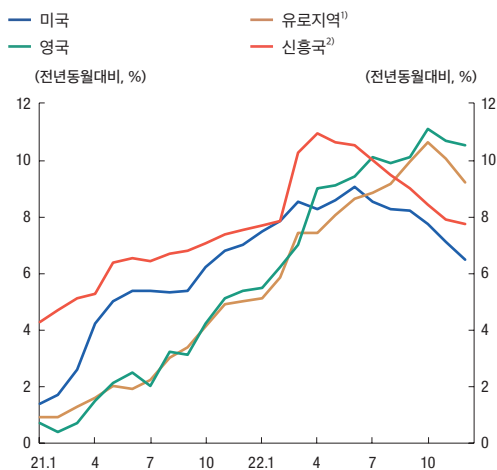
2022년 중 국내경제는 소비의 빠른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1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졌다. 고용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및 공급측 압력이 모두 높아지면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 (1) 경제성장

####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2022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글로벌 공급차질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도

그림 1-5.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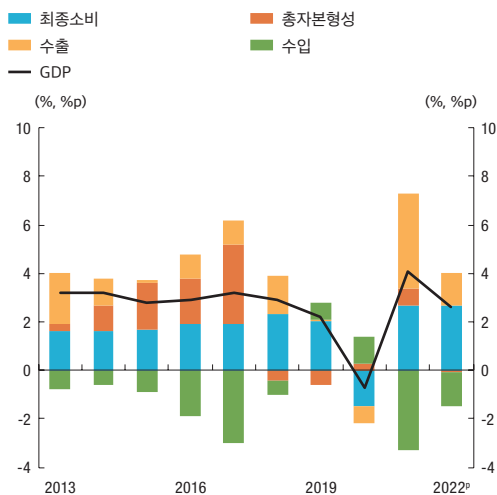


주: 1) HICP 기준

2)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균

자료: 각국 통계청

그림 1-6.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sup>1)</sup>



주: 1) 2021년, 2022년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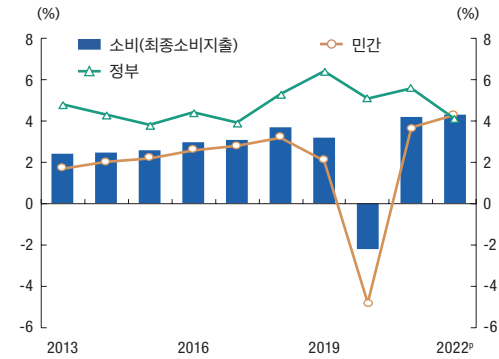
부진하면서 2021년(4.1%)보다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sup>6)</sup>.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상반기(3.0%)보다 낮은 2.2%(전년동기대비)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정부소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sup>7)</sup>. 민간소비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주택가격 하락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서비스소비 증가 및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sup>8)</sup>. 다만 연말로 갈수록 펜트업 수요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sup>9)</sup>. 설비투자는 주요 IT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차질,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지식재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투자와 기타지식재 생산물투자가 모두 늘면서 4.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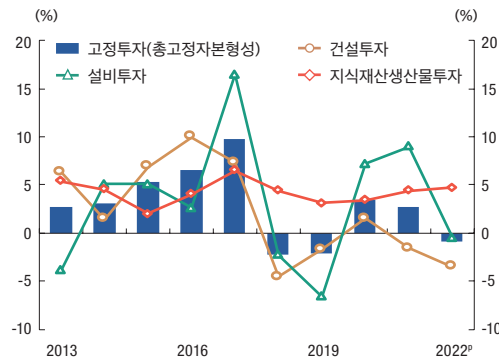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팬데믹 영향(비대면 재화 수요 확대)이 약화되면서 2021년보다 낮은 전년대비 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sup>10)</sup>. 재화 수출은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IT경기 하락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림 1 - 7. 소비 증감률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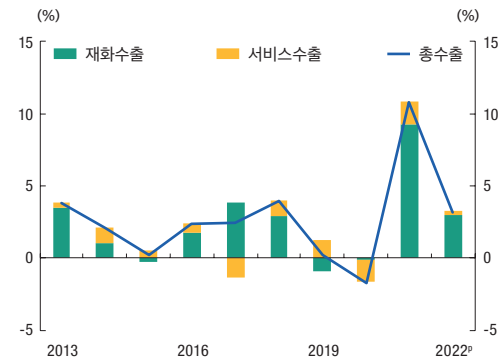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 8. 고정투자 증감률 (실질)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 9. 수출 증감률 (실질)



자료: 한국은행

6) GDP 성장률(실질): 2020년 -0.7% → 2021년 4.1% → 2022년 2.6%

7)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실질): 2020년 -2.2% → 2021년 4.2% → 2022년 4.3%

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실질): 2021년 0.7% → 2022년 2.0%,  
2022년 신규 취업자수 81.6만 명(2015~2019년 평균 24.5만 명)

9)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실질): 2020년 3.5% → 2021년 2.8% → 2022년 -0.8%

둔화흐름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수출도 글로벌 물동량 둔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수출 경기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재화 수입 증가세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 회복 지원 등으로 서비스 수입도 부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3.7%의 증가율을 보였다<sup>11)</sup>.

### 제조업 성장세 둔화 및 서비스업 성장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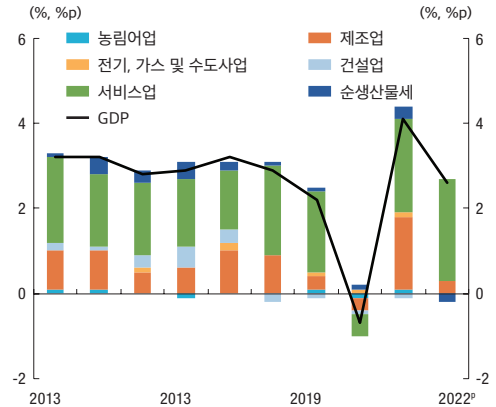
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제조업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성장세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지난 1~2년간 누적된 착공면적 증가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하였다.

제조업은 IT부문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부문도 대체로 부진하며 2021년(6.9%)보다 크게 낮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글로벌 IT경기 하강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IT부문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글로벌 공급차질 완화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의 여타 업종들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서비스업은 2021년(3.8%)보다 높은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업서비스,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그림 1 - 10.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표 1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sup>a)</sup>	2022 <sup>b)</sup>
제조업	3.7	3.3	1.1	-1.1	6.9	1.4
화학제품	3.4	2.5	-0.9	-0.3	5.7	-3.7
1차금속	2.9	-3.8	-0.9	-3.3	5.6	-5.7
금속제품	-0.3	-1.3	-1.8	-6.3	-3.5	-4.0
컴퓨터, 전자 및 광학	4.8	11.4	6.4	5.2	12.9	7.9
기계 및 장비	22.5	0.7	-0.9	1.0	11.2	1.6
운송장비	-8.1	-2.3	1.9	-10.1	5.4	9.2

자료: 한국은행

표 1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sup>a)</sup>	2022 <sup>b)</sup>
서비스업	2.6	3.8	3.4	-0.8	3.8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	2.9	3.5	-5.6	3.4	6.8
운수업	2.7	3.7	1.7	-17.3	5.3	9.2
금융 및 보험업	4.2	5.6	3.4	9.6	6.7	2.4
사업서비스	2.0	3.8	2.6	0.1	2.8	2.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6.4	8.2	9.8	1.1	5.2	6.2

자료: 한국은행

10)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실질): 2020년 -1.7% → 2021년 10.8% → 2022년 3.2%

11)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증가율(실질): 2020년 -3.1% → 2021년 10.1% → 2022년 3.7%

0.3% 증가하였다. 농림어업(-1.3%)은 감소로 전환하였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9%)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2) 고용 및 임금

### 취업자수 큰 폭 증가

고용상황은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81.6만 명) 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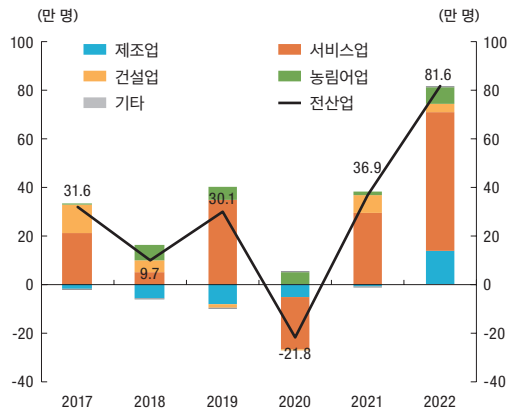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일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였으나, 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일상 회복 등으로 보건·복지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기·전자업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증가 전환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 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임금 근로자의 취업자수도 증가 전환하였다.

연령별로는 30~59세 및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5~29세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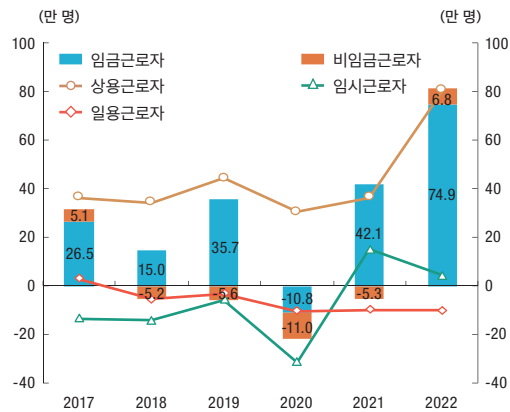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4%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1 - 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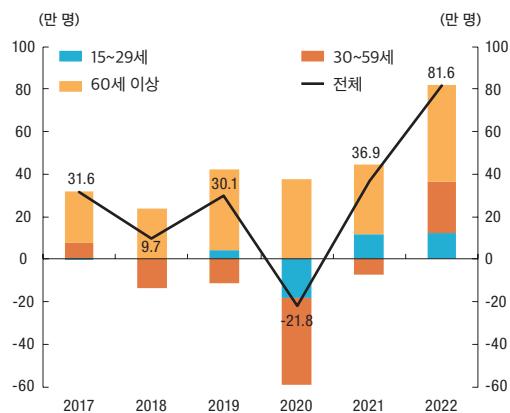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 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1 - 1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 임금 상승폭 확대

명목임금은 4.9% 상승하여 2021년(4.6%)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건조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정액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시간당 명목임금이 큰 폭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22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전년 대비)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상회하며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연초 3%대에서 가파르게 높아져 7월 중 6.3%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연말 경에는 5%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였다.

물가 오름세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높아진 데다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커진 데 기인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압력이 상당폭 완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확대되다가 4/4분기 들어 상당폭 낮아졌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반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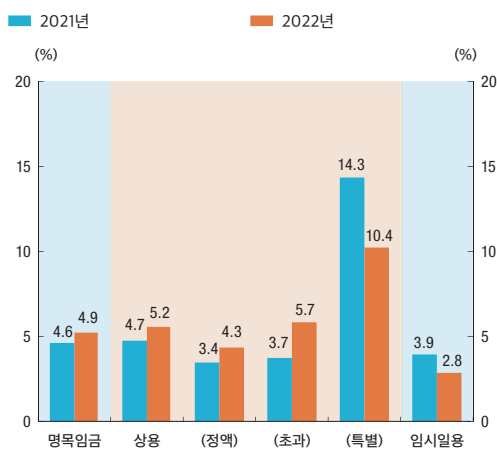
표 1-3. 고용 관련 지표

(만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활동인구	2,775	2,790	2,819	2,801	2,831	2,89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2	0.5	1.0	-0.6	1.1	2.2
경제활동 참가율	63.2	63.1	63.3	62.5	62.8	63.9
취업자수	2,672	2,682	2,712	2,690	2,727	2,809
취업자수증감	31.6	9.7	30.1	-21.8	36.9	81.6
실업률	3.7	3.8	3.8	4.0	3.7	2.9
(15~29세)	9.8	9.5	8.9	9.0	7.8	6.4
고용률	60.8	60.7	60.9	60.1	60.5	62.1
(15~64세)	66.6	66.6	66.8	65.9	66.5	68.5

자료: 통계청

그림 1-14.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표 1-4. 임금 지표 상승률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명목임금 <sup>1)</sup>	3.3	5.3	3.4	1.1	4.6	4.9
(실질임금) <sup>2)</sup>	1.3	3.7	3.0	0.5	2.0	-0.2
시간당 명목임금 <sup>3)</sup>	5.2	6.8	3.9	2.6	4.5	6.2
노동생산성 <sup>4)</sup>	3.9	4.5	1.9	1.8	2.8	1.4
단위노동비용 <sup>5)</sup>	1.3	2.2	2.0	0.8	1.7	4.7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어 수요둔화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름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반면 석유류제의 공업제품가격은 그간 높아진 국제식량가격 등 원자재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었다.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원가상승부담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sup>12)</sup>.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물가가 1%를 밑도는 낮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집세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하였으나 개인서비스물가는 외식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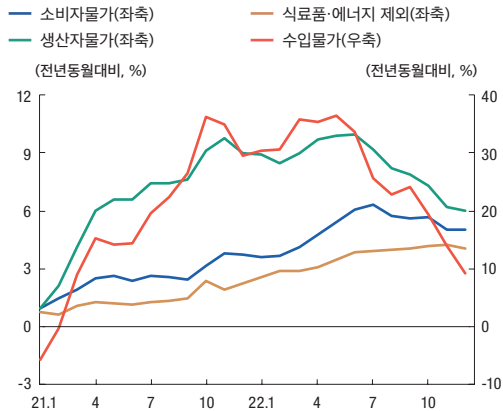
2022년 중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3.6%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며 2008년(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중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기록한 7월 이후에도 4개월간 오름세 확대 흐름을 이어가다가 연말에서야 소폭 둔화되었다.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

주택 매매가격은 금리 상승,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여 연중 4.7% 하락하였다<sup>13)</sup>.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21년 중 오름폭이 컸던 일부 지역<sup>14)</sup>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구, 대전, 세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의 여타 시도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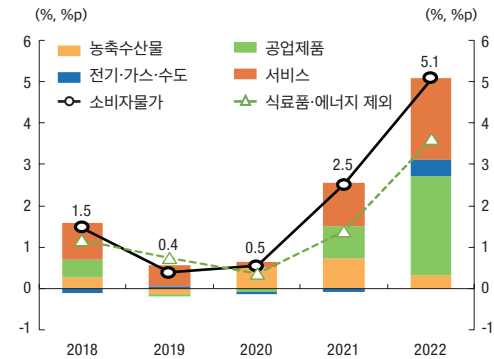
주택 전세가격 또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 등으로 하락하였다<sup>15)</sup>. 반면 주택 월세가격은 수요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1 - 15. 주요 물가 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표 1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21			2022			
	06~10 평균	11~15 평균	16~20 평균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2	2.0	1.7	9.9	-4.7	0.2	-4.9
<수도권>	7.9	0.2	2.8	12.8	-6.5	-0.1	-6.4
<비수도권>	2.4	4.1	0.6	7.4	-3.0	0.5	-3.5
주택전세가격	4.7	5.2	0.7	6.5	-5.6	0.0	-5.6
주택월세가격	..	..	-0.3	2.6	1.0	0.9	0.1

자료: 한국부동산원

12) 2022년 중 전기료는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9.3원/kWh 인상되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47원/MJ 인상되었다.

13) 전국 실거래가지수(매매가격, 공동주택 기준) 기준으로는 연중 14.3% 하락하였다.

14) 2021년 중 수도권 광역교통망(GTX) 관련 기대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경기 시흥, 경기 의왕, 인천 연수구의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 대비)은 2022년에 각각 10.4%(2021년 +30.4%), 12.7%(+30.0%), 15.0%(+34.7%) 하락하였다.

15) 전국 실거래가지수(전세가격, 아파트 기준) 기준으로는 연중 9.4% 하락하였다.

## (4)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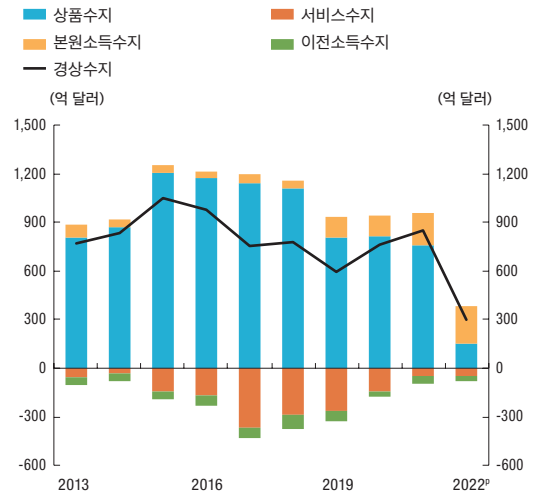
### 경상수지 흑자 축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악화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축소된 2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16)</sup>. 상품수지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더불어 수출이 주요국 성장세 약화, IT경기 하락으로 둔화된 점도 일부 작용하였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높은 수준의 해상운임에 힘입어 운송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이 줄었으며, 본원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지급이 줄어들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 상품 수출 호조 이후 점차 둔화

수출(통관 기준)은 상반기 호조에 힘입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sup>17)</sup>인 6,8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및 IT를 중심으로 부진하는 등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었다.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요부진과 단가하락으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특히 무선통신기기가 부진하였다. 비IT제품도 화공품·기계 등 대부분의 경기민감 품목이 둔화되었다. 다만, 자동차는 공급차질 완화, 친환경차 판매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석유제품도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이 지속되며 큰 폭 증가하였다.

그림 1 - 17.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표 1 - 6. 주요 품목별 수출

	2021		2022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제품	24.0	<35.3>	2.5	<34.1>
반도체	28.1	<20.2>	1.3	<19.3>
무선통신기기	24.7	<3.0>	-10.4	<2.5>
디스플레이패널	18.9	<3.3>	-1.1	<3.1>
컴퓨터	27.0	<2.6>	7.8	<2.6>
비IT제품	26.7	<64.7>	8.1	<65.9>
화공품	38.1	<14.3>	6.6	<14.3>
자동차	23.8	<10.8>	12.3	<11.4>
석유제품	57.0	<6.0>	63.1	<9.3>
기계류	10.5	<8.9>	0.3	<8.4>
철강	32.9	<8.2>	5.1	<8.1>
총수출 <sup>1)</sup>	25.7	[6,444]	6.1	[6,836]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16) 경상수지: 2019년 597억 달러 → 2020년 759억 달러 → 2021년 852억 달러 → 2022년 298억 달러

17) 연간 수출액 상위 3개년도: ① 2022년 6,836억 달러, ② 2021년 6,444억 달러, ③ 2018년 6,049억 달러

상품 수입 큰 폭 증가

수입(통관 기준)도 에너지 수입<sup>18)</sup> 급증으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7,3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수입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의 영향을 받아 원유, 가스 및 석탄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전기·전자기기, 곡물·직접소비재(음식료품)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서비스수지는 팬데믹 특수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적자폭이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19)</sup>. 운송수지는 전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화물운임이 이어지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행수지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관광 위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였으며, 가공서비스수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5) 지역경제동향<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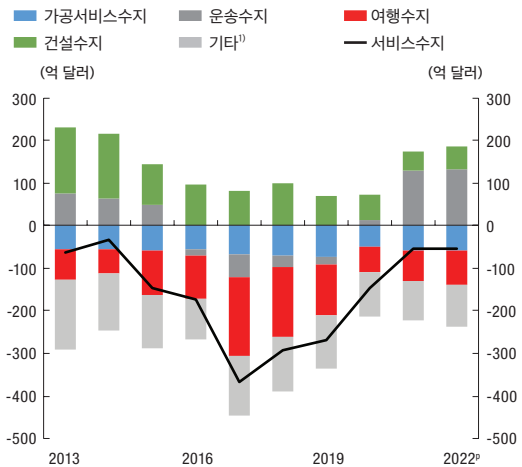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호남권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충청권은 IT 경기 둔화, 대경권은 포항제철 침수 및 휴대폰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표 1-7. 주요 품목별 수입 (%)

	2021		2022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46.7	<49.2>	30.1	<53.8>
에너지	54.2	<18.3>	69.7	<26.1>
자본재	20.2	<34.6>	7.5	<31.3>
전기·전자기기	21.5	<20.7>	13.4	<19.8>
기계류·정밀기기	20.9	<11.4>	-1.9	<9.4>
(반도체제조장비)	50.1	<4.3>	-10.6	<3.2>
소비재	18.3	<16.2>	9.1	<14.9>
총수입 <sup>1)</sup>	31.5	[6,151]	18.9	[7,314]

주: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관세청

그림 1-18.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18) 3대 에너지 수입액: 2019년 1,086억 달러 → 2020년 730억 달러 → 2021년 1,126억 달러 → 2022년 1,910억 달러

19) 서비스수지: 2019년 -268억 달러 → 2020년 -147억 달러 → 2021년 -53억 달러 → 2022년 -55억 달러

20) 2022년 중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12월호.

수요동향<sup>2)</sup>을 살펴보면 민간소비(소매판매액 지수 기준)는 물가 및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하락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축착공면적이 동남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제주권은 농산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대부분 권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제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전기·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되면서 전 권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 전환하였다.

표 1 - 8. 2022년 권역별<sup>1)</sup> 주요 지표<sup>P</su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b>생산</b>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3.7	3.2	-0.5	0.0	-0.7	6.0	1.4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4.9	4.9	4.2	3.5	3.0	5.5	8.6
<b>수요</b>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0.2	0.7	-0.9	-1.5	-0.4	-0.6	-0.1
설비투자 BSI <sup>3)</sup>	97	92	95	94	92	94	97
건축착공면적 <sup>2)</sup>	-21.5	2.2	-14.8	-26.7	-21.2	-16.1	9.3
수출 <sup>4)</sup>	2.5	9.5	4.9	12.5	10.2	0.7	-13.9
<b>고용</b>							
취업자수 증가 <sup>5)</sup>	55.7	4.1	8.2	0.5	6.2	0.8	1.9
실업률	3.0	3.1	2.3	2.9	2.7	3.2	2.1
<b>물가</b>							
CPI <sup>6)</sup>	4.8	5.0	5.5	5.4	5.5	6.0	5.9
주택매매가격 <sup>7)</sup>	-6.5	-3.8	-3.6	-1.2	-4.2	0.5	-0.2
주택전세가격 <sup>7)</sup>	-8.0	-3.2	-4.2	-1.6	-5.0	-0.3	0.0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2)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2. 금융·외환시장

### 가. 국제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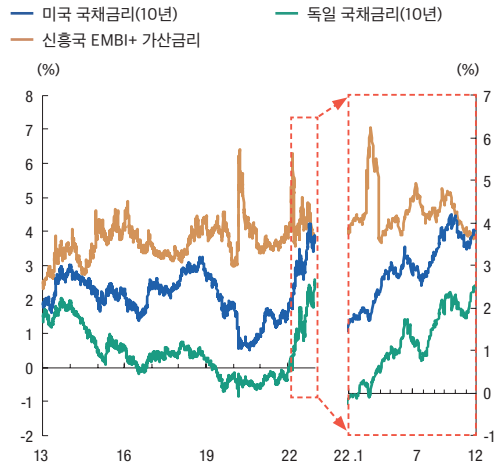
2022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들이 큰 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장기금리 큰 폭 상승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sup>22)</sup>이 이어지며 큰 폭 상승하였다.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장기금리는 6월 들어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세가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강하게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sup>23)</sup>. 독일 장기금리도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sup>24)</sup> 및 ECB의 금리인상<sup>25)</sup>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신홍국의 EMBI+ 가산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큰 폭 상승하였다가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후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하다가, 11월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진정<sup>26)</sup>,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

그림 1 - 19. 주요국 국채금리 및 EMBI+ 가산금리



자료: Bloomberg, JP Morgan

표 1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21		2022		
	3월	6월	9월	12월	
<b>국채금리(10년물)</b>					
(미국)	1.51	2.34	3.01	3.83	3.87
(독일)	-0.18	0.55	1.34	2.11	2.57
<b>리스크 프리미엄</b>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sup>1)</sup>	186	189	236	220	188
(신홍국 CDS 프리미엄) <sup>2)</sup>	187	228	339	332	239
(신홍국 가산금리) <sup>3)</sup>	386	368	461	467	375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22) 미 연준은 3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2년 중 정책금리를 총 7회에 걸쳐 425bp 인상하였다. 특히 6월 이후 11월까지 네 번 연속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였다.

23) 특히 8월 26일 개최된 잭슨홀 경제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안정 우선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이후 시장의 미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강화되었다.

24)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7.4%에서 10월 10.6%까지 높아졌다.

25)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2년 중 정책금리를 총 4회에 걸쳐 250bp 인상하였다.

26)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6월 9.1%에서 11월 6.5%까지 낮아졌다.

책 완화<sup>27)</sup>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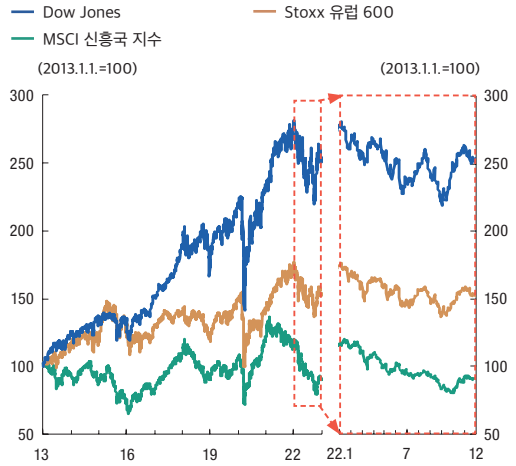
###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 하락

미국 주가(다우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하였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진정<sup>28)</sup>에 따른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도 ECB의 금리인상 속에 경기침체 우려가 가세하면서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글로벌 투자심리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선진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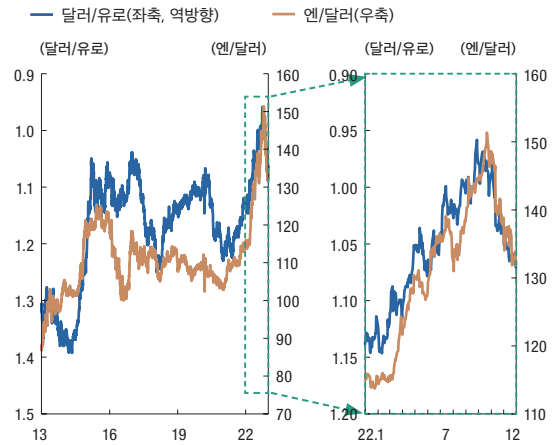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의 주요국 중앙은행 대비 긴축 기조 강화에 따라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었다. 미 달러화의 가치는 2022년 중 유로화 대비 6.3% 절상, 엔화 대비 13.9% 절상되었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둔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미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이후 ECB의 긴축 강화<sup>29)</sup>,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강세폭을 축소하였다.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10월 말 이후 일본 당국의 달러화 매도개입<sup>30)</sup>,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 정책 변

그림 1 - 20.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JP Morgan

그림 1 - 21.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Reuters

27) 시진핑 국가 주석은 코로나 방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11월 10일), 이후 중국 방역당국은 격리기간 단축, PCR 검사 축소, 고위험지역의 봉쇄 해제 등 방역 완화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28)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7.7%로 시장예상치(7.9%)를 하회하였다(11월 10일).

29)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한 데 이어 9월 및 10월 회의에서는 75bp씩 인상을 하였다.

30) 일본 재무성은 10월 중 6.3조 엔 규모의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10월 31일).

경<sup>31)</sup> 등으로 강세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 나. 국내금융시장

2022년 중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단기시장금리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회사채 및 CP 금리는 10월 PF-ABCP 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은행 여신은 기업대출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높은 운전자금 수요,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에 따른 대출활용 확대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 매매거래 부진,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 (1) 금리

#### 장·단기금리 큰 폭 상승

2022년 들어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 영국 금융시장 불안<sup>32)</sup>, 10월에는 국내

31) 일본은행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제 10년물 금리의 변동범위를  $\pm 0.25\%$ 에서  $\pm 0.50\%$ 로 확대하였다(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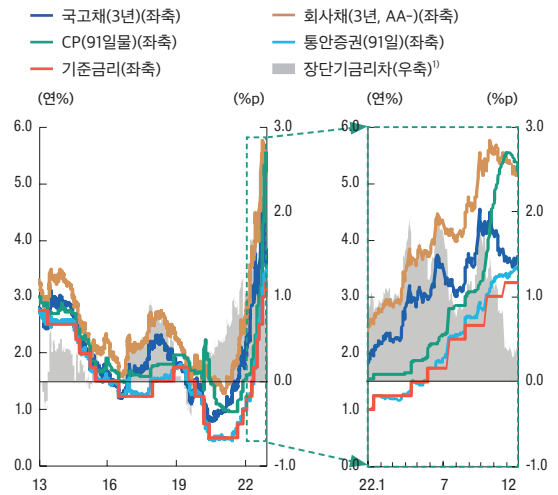
PF-ABCP 시장 불안<sup>33)</sup>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연중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였다<sup>34)</sup>.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sup>35)</sup>,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회사채(3년)금리도 연중 큰 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 대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36)</sup>를 보면 2022년 중 금리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한전채·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sup>37)</sup>, 10월 이후 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크게 확대<sup>38)</sup>되었으며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에는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단기시장금리도 2022년 중 크게 상승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으며 CP(91일, A1등급) 금리는 PF-ABCP 시장 불안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연말경 다소 하락하였다.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다<sup>39)</sup>.

그림 1 - 22. 주요 시장금리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 32) 영국 리즈 트러스(Liz Truss)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최고 소득세율 구간 철폐, 법인세 인상계획 철회 등이 포함된 대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였다(9월 23일). 이후 영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짐에 따라 동 감세안이 철회되고 Truss 총리는 조기 사임하였다(10월 20일).
- 33)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받은 대출을 기초로 아이원제일차(SPC)가 발행한 PF-ABCP가 부도 처리(10월 4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CP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 3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국고채금리 연중 최고치 재돌파, 그 배경과 평가는?」)를 참조하기 바란다.
- 35) 정부는 10월 23일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16조원),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3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지원(15조원), 증권사 보증 PF 매입프로그램(1.8조원) 등을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10월 27일 적격담보대상 및 대상증권 확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6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 RP 매입(2.5조원)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과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단기금융 및 채권 시장 불안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참조하기 바란다.
- 36) 회사채 신용스프레드(AA- 3년물 기준, 국고채 대비)는 2021년 12월 말 61bp에서 2022년 6월 말 81bp, 9월 말 109bp, 11월 말 179bp로 확대되었다가 12월 말 148bp로 축소되었다.
- 37) 2022년 중 한전채, 은행채 등 AAA등급 신용채권 순발행액은 총 53.1조 원으로 전체 신용채권 순발행액(50.6조 원)의 10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타 신용채권 수요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 신용스프레드 확대요인을 중심으로」(BOK이슈노트 제2022-42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 39) 2022년 12월 중 여신금리는 5.56%로 2021년 12월(3.25%)에 비해 2.31%p 상승하였으며 여신종별로는 기업대출금리가 2.42%p, 가계대출금리는 1.94%p 상승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수신금리는 4.22%로 2021년 12월(1.70%)에 비해 2.5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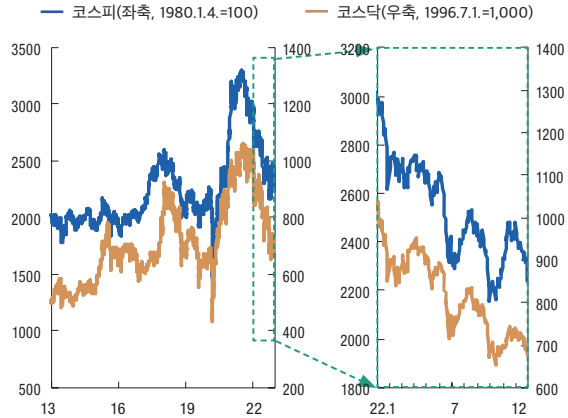
## (2) 주가

### 코스피 큰 폭 하락

2022년 중 코스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연초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 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 등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조정이 지속되다가 7월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9월에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재차 하락하여 연저점(2,155, 9월 30일)을 기록하였다.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였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우려, 미·중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2021년말 대비 24.9% 하락한 2,236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 - 23.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 (3) 금융기관 여수신

### 은행 수신 증가폭 축소

2022년 중 은행 수신은 2021년에 비해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정기예금 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수시입출식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가운데 은행 전체 수신규모는 대출 증가폭 둔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 약화 등으로 축소되었다.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가 하락, 대내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sup>4)</sup>.

표 1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은행 <sup>1)</sup>	91.6	106.3	188.4	198.5	107.4
수시입출식	10.9	65.9	189.3	131.0	-104.9
정기예금	72.2	48.3	-14.4	41.8	200.1
시장성수신 <sup>2)</sup>	7.8	-14.6	14.6	33.9	13.6
자산운용회사 <sup>3)</sup>	53.8	98.6	42.2	93.9	44.4
상호저축은행	8.6	6.1	13.2	23.3	17.6
신용협동기구 <sup>4)</sup>	39.7	60.7	50.1	69.4	86.0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혼합형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기업대출 상당폭 증가, 가계대출 감소 전환

2022년 중 기업대출은 은행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대기업대출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높은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은행대출로 집중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sup>41)</sup>.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sup>42)</sup> 지속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 매매거래 부진 등으로 대출수요가 위축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규제<sup>43)</sup> 강화 등의 영향도 가세하면서 감소 전환하였다<sup>44)</sup>.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표 1-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업대출	81.8	90.2	169.6	171.5	198.0
은행	46.7	47.7	110.8	94.1	114.9
대기업	6.9	-1.8	20.9	9.0	44.3
중소기업	39.8	49.4	90.0	85.1	70.6
비은행 <sup>1)</sup>	35.1	42.5	58.8	77.4	83.1
가계대출 <sup>2)</sup>	76.8	58.3	128.7	123.5	-7.8
예금은행	52.4	54.6	82.2	60.2	-7.5
(주택담보대출)	30.1	39.7	49.9	45.7	14.6
(기타대출)	22.4	14.9	32.2	14.6	-2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sup>3)</sup>	6.8	-4.5	7.6	27.6	-6.0
기타금융기관 등 <sup>4)</sup>	17.5	8.1	39.0	35.7	5.7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4) 외환시장

### 원/달러 환율 변동성 큰 폭 확대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중 고인플레이션 지속 및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1~2월 중 1,200원 내외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40) 2022년 중 자산운용사 수신을 펀드 유형별로 보면 채권형펀드(-11.1조 원) 및 주식형펀드(-4.6조 원)에서 자금이 유출되었고, MMF(+16.0조 원) 및 기타펀드(+48.0조 원)로는 자금이 유입되었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어려우나? - 회사채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를 참조하기 바란다.

42) 정부는 당초 2022년 9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였다.(2022년 9월 27일, 금융위 보도자료)

43)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년 4월 29일, 10월 26일)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를,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3단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한편 2021년 8월 시행된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이내 제한 규제는 2022년 7월부터 폐지되었다.

4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블로그(“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 최저치 기록, 향후 전망과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를 참조하기 바란다.

러 환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코로나19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미 달러화가 큰 폭의 강세<sup>45)</sup>를 보인 데 영향받아 10월에 1,44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그동안 시장 예상을 상회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미 연준이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1,260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하였다. 2022년 말 원/달러 환율은 1,264.5원으로 2021년 말(1,188.8원) 대비 6.0% 절하되었다.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BIS 기준)는 미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교역비중이 큰 중국 및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위안화 및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2년 말 원화의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2021년 말(97.39) 대비 0.9% 상승한 98.23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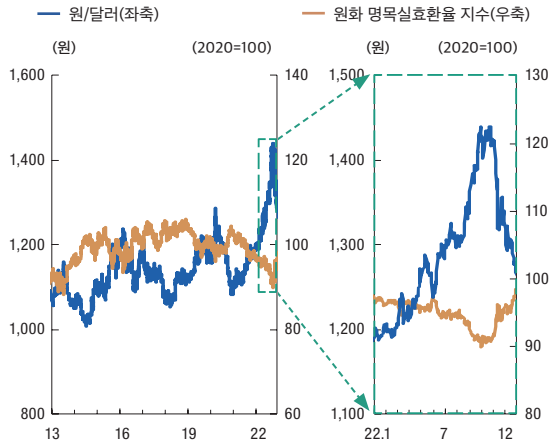
한편 2022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일평균 8.4원 및 6.5원으로 2021년(각각 5.2원 및 3.6원) 대비 확대되었다.

**외화자금시장 안정세 유지**

2022년 중 미 달러화의 가파른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화자금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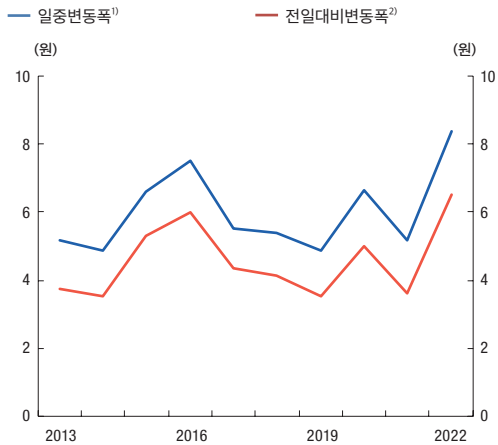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sup>46)</sup>를 차감한 차이

**그림 1 - 24. 원/달러 환율 및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sup>1)</sup>**



주: 1)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IS 발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BIS

**그림 1 - 25. 원/달러 환율 변동폭 (연평균)**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 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댓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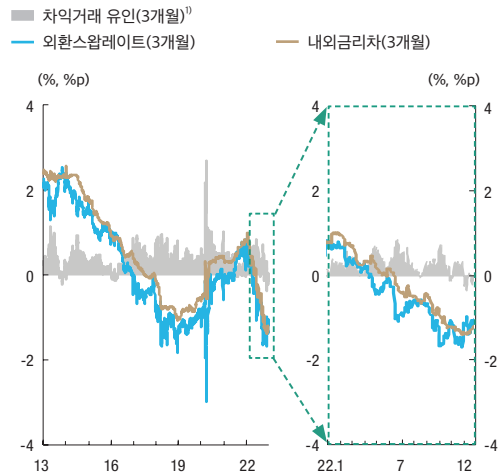
45) 주요 6개 통화(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지수(DXY)는 2022년 1/4분기 평균 96.9에서 3/4분기 평균 108.3까지 상승하였다.

46)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거래유인(3개월)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강화된 거시건전성에 힘입어 국내은행의 대외차입 가산금리 상승 폭이 제한<sup>47)</sup> 되는 등 대외차입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영향으로 11월 하순 -1.70% 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12월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부각 등으로 하락폭을 축소하여 2022년 말에는 2021년 말 대비 1.83% 포인트 하락한 -1.15%를 기록하였다.

그림 1 - 26. 외환스왑레이트



주: 1) 차익거래유인 = 내외금리차 - 스왑레이트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계(주), 한국 플랫폼레븐 외국환중개(주)

## QR BOX



### QR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웹페이지



### QR 2

국제경제리뷰: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



### QR 3

지역경제보고서  
웹페이지



### QR 4

한국은행 블로그

47)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게 부각되었던 2020년 3월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67bp 수준(2019년 평균 대비 +64bp)이었으나 2022년 11월에는 19bp 수준(2021년 평균 대비 +17bp)에 불과하였다.